

전주 덕진 “DJ는 내 편” 논란

정동영 “내가 DJ 적자... 당 깬게 아니라 버림받아”

김근식 “햇볕정책 이론 토대 제공” 金心 적극 활용

‘민주당 대 정동영’ 구도로 치러지고 있는 전주 덕진 재선거에서 ‘김심’ (金心·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의중) 논란이 일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김근식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모두 ‘햇볕 정책’의 적자를 자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DJ와 개인적 인연도 깊어 논란은 더욱 확산할 조짐이다.

우선 인물론 대결로 갈 경우 김근식 후보가 통일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지명도가 있지만, 정치 경력에서는 열세일 수밖에 없어 민주당은 이번 선거전에서 ‘김심’을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김심’을 통해 정 후보의 예봉을 꺾겠다는 것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김 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동교동을 찾은 정 전 장관에게 ‘어떤 경우에도 당이 깨지거나 분열돼선 안 된다’며 무소속 출마에 부정적 입장을 시사한 것을 예로 들면서 “DJ의 의중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끝내 당을 뺀다



〈정동영 前 장관〉 〈김근식 후보〉

간 정 전 장관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김근식 후보와 DJ의 인연도 강조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DJ의 아태평화재단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임동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맥을 잇는 동교동계 ‘햇볕 정책’ 전문가 그룹의 막내 격으로 분류된다. 그는 공천 확정에 앞서 동교동을 찾아 DJ와의 ‘ 끈’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김 후보가 대선 후보를 지낸 정 전 장관의 ‘정치적 고향’에서 고군분투해야 하는 버거운 상황에서 ‘김심’에 힘입어 최대한 선전해보겠다는 복안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 전 장관 측도 물러설 기세가 아니다. 정 전 장관 측은 “정 전 장관은 당을 깬 것이 아니라 당으로 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라며 “출마선언문에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을 깨서는 안 된다”는 DJ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전 장관은 지난 96년 정치입문 후 김대중 당시 총재 시절 국회의원회에서 대변인을 맡았으며 이후 주요 현안이 있을 때 동 교동을 찾아 조언을 구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개성공단 사업 등을 주도한 만큼 ‘DJ 적자론’을 선거전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양측의 움직임에 대해 동교동 핵심 관계자는 “DJ가 선거에 관여하는 일은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민주세력의 적통을 이어받아 잘 되길 바랄 뿐”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한편 민주당은 전주완산갑 후보를 이끌 전 의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민주당은 후보자 추천 선거인단 경선에서 선거인단 득표율과 여론조사 득표율을 합산한 결과, 이 전의원이 41.2%를 얻어 27.3%를 얻은 2위 한광욱 후보를 크게 누르고 당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LA 한인 여성 경찰 총격 피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10일(이하 현지시각) 한 살배기 딸을 태우고 운전하던 한인 여성이 경찰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께 오렌지 카운티의 샌타애나 시에서 승용차를 몰던 수지 영 김(37·오렌지 카운티 어바인 거주)씨가 경찰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30여 분간 추격전 끝에 경찰이 손 총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다.

현지 경찰은 김 씨가 이날 교통신호를 해 정지신호를 보냈으나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고 추격전 도중 가로막는 경찰차

13개월된 딸은 무사

경찰 과잉대응 논란

량을 들이받는 등 위험성이 상당해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숨진 김 씨가 어린 아이까지 태운 채 경찰을 피해 위험한 도주를 했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김 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행히 김 씨 차량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에 타고 있던 13개월 된 딸은 무사했고 사고 후 인근 아동보호소에 일단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어린 아이가 탄 차량에 총격을 가한 것으로 밝혀져 한인 사회에서 경찰의 과잉대응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관할 오렌지카운티 검찰이 경찰의 총격이 적법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국의 수도 방콕에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축출된 탁신 치나왓 총리의 지지자들이 12일(현지시간) 탈취한 장갑차에 올라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국 시위 격화 ‘아세안+3’ 무산

방콕 일대 비상사태 선포... 李대통령 조기 귀국

태국 반정부 시위대의 회의를 난입해 ‘아세안+3(한·중·일) 회의’가 무산되는 등 사회혼란이 일자 태국 정부가 수도 방콕과 주변 5개주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역은 방콕과 주변 지역인 논차부리, 사뭇 프라 칸,

파롬타니, 나콘파롬, 아우타야 등 5개 주다. ‘독재저항 민주주의 연합전선(UDD)’이 이끄는 시위대 수백 명은 아피싯 총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직후 내무부 청사로 몰려가 총리 차량을 부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명이 부상한 것

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0일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차 태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현지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자 일정을 앞당겨 12일 새벽 서울공항을 통해 조기 귀국했다. 또 정부는 태국 치안이 불안해짐에 따라 파타야에 대한 여행경보를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했다. /연합뉴스

‘北 로켓’ 안보리 제재 대신 의장 성명

자산동결·여행 금지 등 강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국들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키로 했다.

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주요 6개국 회의와 15개 이사국이 모두 참여한 비공개 회의를 잇따라 열고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련한 의장성명을 채택키로 의견을 모았다.

안보리는 이사국이 각국의 본국 정부와 상의하는 절차를 거친 뒤 빠른 13일 공개회의를 열고 의장성명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안보리가 의장성명 채택 함의에 이르게 된 것은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미국, 일본과 6자회담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중국, 러시아의 입장으로 갈등던 주요 6개국 이 날 오전부터 2시간 가까운 별도 협의

를 거친 것이다. 안보리 의장성명은 유엔 회원국이 실행에 옮겨야 하는 구속력을 갖는 결의안보다는 수위가 낮은 것으로,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승인이 돼야 채택된다. 이날 미국의 수석 리스 유엔 대사에 의해 제안된 의장성명 초안은 북한의 지난 5일 발사를 비난(condemn)하고, 이를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contravention)으로 규정했다. 초안은 또 북한이 추가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김효석 IPU 부의장 ‘의원 외교’ 새 지평

한국인 첫 본회의 주제

김효석 민주당 의원(당양·곡성·구례·사진)이 IPU(국회의원연맹) 부의장에 지명돼 대한민국 국회의 원으로서 처음으로 본회의를 주재하는 등의 의원 외교의 새 지평을 열었다.

지난 5일부터 에티오피아 아디

스아바버에서 열리고 있는 제120차 IPU 총회에 국회 대표단장으로 참석하고 있는 김 의원은 IPU 총회에서 부의장에 지명된 것은 물론, “위기의 시대에 평화와 민주주의의 증진 및 개발 촉진”을 주제로 대표 연설에 나서 큰 호응을 얻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김 의원을 비롯한 한국 대표



단은 에티오피아 현지에서 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 40여명의 KOICA(한국국제협력단) 단원들을 만나 격려하는 한편 에티오피아 빈민촌을 방문, 구호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의원 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

2010년 상위권대학 편입학 성공전략

새로운 출발 성공의 첫단추 - www.kimyounu.co.kr

대학편입은 역시 김영

강력명 10명중 7명이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227-8088

대한민국

Brand Name

출판처: 새피나, 최윤연, 김민현, 각종 모임 혜택 접수중

아이엔리시아 가족을 모집합니다

출판처: 새피나, 최윤연, 김민현, 각종 모임 혜택 접수중